



호원대, 사랑의 헌혈증서 전달식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는 23일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원장 김연숙)과 생명나눔 약정식 및 사랑의 헌혈증서 전달식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약정식 및 헌혈증서 전달식에는 강희성 총장 및 학교 보직자들과,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 김연숙 원장, 문병한 헌혈개발팀장이 참석했다.

강희성 총장은 “최근 코로나19로 헌혈의 중요성이 더욱 더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 대학 구성원들이 헌혈 캠페인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헌혈 증서를 기부하게 됐다”며 “이웃과 사회에 희망과 도움을 주는 대학으로써의 자부심을 느낀다”고 전했다.

김연숙 원장은 “호원대학교 구성원들의 헌혈증서 기부와 안정적 헌혈 수급 동참에 대한 약속이 국민들의 헌혈 참여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소방서, 금지 동초등학교에서 소방안전교육

남원소방서는 23일 금지동초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서는 기도폐쇄 환자에게 실시하는 하임리히법과 심폐소생술 체험과 화재 시 소화기 한대의 효과와 사용법을 익히도록 해 긴박한 상황에서의 초기 대응 요령을 향상 시켰다.

또한 119신고요령, 화재대피요령, 소화기 체험, 심폐소생술 및 완강기 작동 실습 등 다양한 소방안전 교육을 병행해 소방에 궁금했던 점을 해소하고 소방관 직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 공덕면 복지기동대, 순간온수기 설치 봉사

김제시 공덕면 복지기동대(대장 박연무)와 공덕면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은 23일 보일러가 없어 따뜻한 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독거노인 가정에 순간온수기를 설치해주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순간온수기 설치 봉사를 받은 전모 어르신은 “온수가 나오지 않아 찬물을 가스레인지에 데워 사용했는데, 이렇게 순간온수기 설치를 해주셔서 따뜻한 겨울을 나게 되었다며, 정말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진안경찰, 선제적 점검으로 불법촬영 적극 대응

진안경찰서(서장 김태형)는 지난 22일 학교 및 공공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펼쳤다.

이번 점검은 학교뿐 아니라 민원인이 다수 방문하는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화장실·탈의실 등에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공화장실 이용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김태형 경찰서장은 “선제적 점검과 맞춤형 예방활동을 통해 군민들이 불법촬영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평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경찰, 추석 강력사건 대비 모의훈련 실시

남원경찰서는 23일 추석 명절 기간 발생할 우려가 있는 현금취급업소 강도사건에 대비하기 위한 모의훈련(FTX)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불상의 남성이 편의점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 현금을 강취한 후 도주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했으며, 경찰서 및 지역경찰 약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신고 접수부터 검거 시까지 단계별 처리절차에 따른 업무수행과 현장에서의 실천과 같은 훈련으로 진행됐다.

/남원=김기두 기자

▶▶ 축하 결혼 ◀◀

▲김두겸(전주 서문초등학교 교사, 김영훈·조월봉씨 장남)·전가인(익산 영동초등학교 교사, 전영선 전주군청 경제산업국장·김호인씨 장녀)양= 일시: 9월 26일 토요일 낮 12시, 장소: 익산 웨스턴라이프호텔 2층 루미에르홀

집,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다

정읍 감곡중학교, 학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랑의 손길 ‘훈훈’

정읍 감곡중학교(교장 최용훈)에서 자선단체의 도움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재학생에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펼쳐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3월에 부임한 최용훈 교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이 전개되는 시점에서 학생들에게 가정학습 자료를 전달하고 인사를 나누기 위하여 담임선생님과 같이 학생들을 만난던 중, 감곡중학교에 재학 중인 이수진(가명) 남매의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함을 접하고 해결 방법을 고심했다.

이수진(가명) 남매는 정읍시 감곡면에 거주하면서 소규모 농촌이라는 지역적 한계로 다양한 교육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남매의 부모는 허리와 무릎, 시각장애 등 질병이 있어 당장 수술 등의 치료가 필요하지만 더 시급한 의식주 해결이 우선이라 진통제로 통증을 참아가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실상가상으로 국유지 위에 세워진 집은 너무 넓어 단열이 안 되는 것은 물론 누수까지 심하고 여름이면 벌레들이 들끓어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현실을 파악한 최 교장은 우선 교직원부터 발 벗고 나서 남매를 돕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여러 기관의 문을 두드렸으며 마침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찰서, 농협등 17개 기관, 단체, 이봉진 감곡 목지가의 도움으로 3,500여만원의 성금과 물품을 모금하고 각개 분야 개인들의 재능기부가 모여 이수진(가명) 남매의 '주택 리모델링'이 완성된 것이다.

최용훈 교장은 “학생회장과 부회장으로 활동하는 수진이 남매에게는 그 무엇에 비해 수 없는 이번 추석 선물이 될 것이며 수진이 남매의 꿈의 보금자리가 될 거라 기대하며 더불어 보다 적절한 교육적,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두 학생은 나눔과 배려, 존중을 실천하는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진안군청 소속 역도 선수 유동주, “진안홍삼먹고 금메달 번쩍”

진안군청 역도부(감독 최병찬)소속 유동주 선수가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경상남도 고성군에서 열린 2020년 제92회 전국남자역도선수권대회에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 ‘진안홍삼의 힘’을 확실히 보여줬다.

유동주 선수는 22일 남자 일반부 89kg급 경기에서 합계 366kg(인상 161kg, 용상 205kg)을 들어 라이벌 정현섭을 1kg 차로 누르고 우승했다.

이날 유동주는 인상에서는 165kg을 든 정현섭에 4kg 차로 밀렸다. 그러나 용상에서 205kg에 성공하며, 200kg을 든 정현섭을 5kg 차로 제쳤고 합계에서 정상에 올랐다.

유동주 선수는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진안군과 감독님께 영광을 돌린다.”며 “긴장을 놓지 않고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메달권에 들 수 있도록 훈련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동주 선수는 현 국가대표로 전국체전에서만 2018

년, 2019년 2년 연속 3관왕을 기록했으며, 올해 전국 선수권 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따는 등 국내무대를 평정하여 내년 열리는 도쿄올림픽 메달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기대주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북체육회, 여성체육위 열어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는 23일 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차 여성체육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미뤄졌던 여성체육위원회는 여성체육의 육성 지도 및 보급, 각종 여성 체육 행사, 여성 체육 시설, 여성 체육 개발, 여성체육육성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정강선 회장은 새롭게 구성된 조금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스포츠 도민 기본권 확립 등 도 체육회의 정책 방향이 소개됐고, 오는 10월 예정됐다가 취소된 전북여성생활체육대회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당초 전북여성생활체육대회는 순창군 일원에서 2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배구와 줄다리기, 체조 등 8개 종목이 펼쳐질 예정이었다.

조금자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체육계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북 체육 발전, 특히 여성 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강선 회장은 “전북 여성 체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고견 부탁드린다”며 “여성체육위원회가 왕성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도 체육회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체고 사격부, 전국대회서 ‘우수’

전북체육고등학교 사격부가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23일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최근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제49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 학생 사격대회’에서 전북체고 사격 선수단이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를 획득했다.

공기권총 단체전에 출전한 김강현, 정우진, 양승용, 방민혁은 고른 활약으로 1704점을 쏘 우승을 차지했다.

또 공기권총 개인전에 나선 김강현은 236.8점으로 단체전에 금메달에 이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자봉센터, 추석명절 어르신 건강물품 꾸러미 전달

(사)전북도자봉봉사센터(김광호 이사장)는 23일 추석명절을 맞아 어르신들 위한 건강물품 꾸러미를 (사)대한노인회 전북도연합회(김두봉 회장)에 전달했다.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인해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은 감염의 우려도 높아 건강관리에 특히 신경써야한다.

특히 갈 곳을 잃어 추석 명절마저 홀로 보내야하는 독거 어르신들의 외로움은 더욱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사)전북도자봉봉사센터는 은고을 라이온스클럽과 하림재단으로부터 후원받은 성금으로 추석명절 어르신들 위한 건강물품 꾸러미를 제작 및 지원했다.

/유호성 기자

한일장신대 야구부 2명, 프로야구 구단에서 활약

한일장신대학교(총장 구춘서) 야구부 배동현·정연제 선수는 각각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와 키움 히어로즈에서 활약하게 됐다.

배동현 선수(왼쪽)과 정연제 선수.

두 선수는 지난 21일 열린 ‘2021 KBO 2차 신인 드래프트’에서 각각 프로팀의 선택을 받았다. 36개 대학 중 13개 대학에서만 20명이 지명됐고, 그중 한일장신대는 강릉영동대(4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선수를 배출해 야구 명문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투수 배동현(21·운동처방재활학과 4학년) 선수는 2차 5라운드에서 한화 이글스의 지목을 받았다. 배선수는 183cm 85kg의 건장한 체격에 평균 144km/h, 최고 150km/h를 던지며 대학투수 랭킹 3위안에 드는 즉시전력감으로, 당장 내년에 출전할 가능성이 높다. 작년 제29회 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 국가대표로 활동했으며, 제2의 박상원·강재민이 될지 주목을 받고 있다.

투수 정연제(21·운동처방재활학과 4학년) 선수는 2차 8라운드에서 키움 히어로즈에 선택됐다. 정선수는 186cm 100kg으로 세광고 재학시절 상위권에 있었으나 부상으로 한동안 실력 발휘를 하지 못했다. 최근 몸이 회복되면서 예전 기록을 다시 보이고 있어 앞으로 프로야구팀에서의 실력이 기대되고 있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 금동, 추석맞이 온정의 손길 이어져

남원시 운용한 금동 동장은 “매년 명절마다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한 관내 독지가들이 있어 훈훈한 명절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정을 나누기 위해 친절식당 백미10kg 35포, 바다로마트에서 라면 100bo를, 금동발전협의회에서 현금 40만원을 기탁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군산 서수파출소, 추석맞이 사랑 나눔 위문 활동

군산경찰서(총경 최홍범) 서수파출소는 23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랑 나눔 위문 활동을 통해 관내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위문금을 전달해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만들었다.

서수파출소에서는 평소 서수면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혼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김모 씨를 찾아 격려했다.

이날 방문은 추석과 코로나 19로 인해 힘들어진 지역주민들을 위해 군산경찰서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군산=한경봉 기자

성덕면 용소마을 이장, 어려운 이웃 위한 성금 기탁

김제시 성덕면 용소마을 이장 양영철씨는 23일 성덕면 행정복지센터에 저소득 취약 계층에게 전달해 달라며 1백만원 을 성덕면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해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양영철 이장은 지난 4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을 위해 참쌀 500kg을 기부한 바 있으며, 해마다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고 있다. 또한 꾸준한 나눔 실천으로 지역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으며, 성덕면 기부 문화 확산에 일조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무주국립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서부지방산림청 무주국립관리소(소장 성상용)는 숲이, 약용버섯, 산약초 등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국립관리소 불법채취 방지를 위해 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승합차량 등을 동원한 채취꾼 및 인터넷에서 모집된 단체의 불법 채취 행위 방지를 위해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입산로 생산지를 중심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산림 내 불법 산림훼손 및 입산물 굴·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지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무주=전문선 기자